

제 11 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발표

일시 : 2015 년 7 월 17 일(금) 오후 6:00 Teaneck Marriott Hotel, NJ

주최 :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후원 : 재외동포재단, 주미대사관, 예뵐한복



<식순>

- 1.개회선언 / 한희영 NAKS 교육
- 2.환영사 / 최미영 NAKS 총회장
- 3.축사 /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 4.발표
 - 1) 박세웅 갈보리무궁화 한국학교 (동북부)
 - 2) 이윤재 섯별한국학교 (중남부)
 - 3) 조승연 페더럴웨이통합한국학교 (서북미)

5. 시상

1)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상

남서부	박상윤	알칸사 제자들 한글학교
뉴잉글랜드	김모레	우스터한국학교
동남부	이새해	애틀랜타한국학교
동북부	박세웅	갈보리무궁화한국학교
동중부	김승규	벅스카운티
미시건	유수하	디트로이트세종
북가주	지예별	상향한국학교
서북미	조승연	페더럴웨이통합한국학교
워싱턴	추민서	하상한국학교
중남부	이윤재	섯별한국학교
중서부	김유진	그레이스무궁화한국학교
콜로라도	유사랑	볼더한국학교
하와이	정선호	하와이 한인사회학교

- 2) 주미대사상 : 박세웅, 조승연, 이윤재
- 3)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상 : 박세웅, 조승연, 이윤재
- 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 조승연(발표학생중 고학년)
- 5) 부상 : 발표 학생 모두에게 예뻐한복에서 맞춤 한복 증정

제 11 회 나의 꿈 말하기 발표 학생 원고

"함께 꿈을 꾸는 축구선수"

샛별한국학교 이윤재



저의 꿈은 함께 꿈을 꾸는 축구선수입니다. 축구선수가 되어 프리미어리그에서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골 세리머니를 하는 제모습을 상상하면 지금부터 가슴이 쿵쿵 뛰니다.

다섯 살 때 엄마 손에 이끌려 YMCA 팀에서 처음으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공에 낙서도 하고 열심히 뛰어야할때는 잔디밭 풀을 뜯고 해서, 엄마한테 돈이 좀 아까운 거 같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축구가 재밌어지면서 열심히 하게 되어 팀의 메인 공격수로 뛰게 되었습니다. 그 때는 정말로 제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트래블팀 들어가서도 잘하겠지 하는 맘으로 들어간 팀에는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공격수에서 수비수로 밀려나고 벤치에 앉아 있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신감도 조금씩 없어졌습니다.

아빠는 이런 저를 뒷마당으로 데리고 가서 매일 슈팅 연습과 드리블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유명한 선수들의 플레이를 분석하면서 힘을 주셨습니다. 또 축구는 혼자하는 운동이 아니라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후에 게임이나 연습을 할 때 심장이 터질 만큼 열심히 뛰었고, 팀이 지고 있으면 함께 화이팅을 외치며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일 년 반 동안 수비수로 최선을 다하는 저에게 코치는 다친친구 대신 공격수로 뛰게 해주었습니다. 모두가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뛰었고 친구가 패스해준 공을 제가 뺏 차서 골인이 되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느낌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제 이름과 팀이름을 크게 불러주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트래블팀에서 열심히 연습을하고 시합에 나가고 우리 팀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전체 그림도 그려봅니다. 물론 쉴 때는 저의 롤 모델인 박지성 선수가 나오는 피파 축구 게임을 합니다. 그러다가 게임 많이 한다고 엄마한테 많이 혼나기도 합니다.

박지성 선수가 만든 축구센터 앞에는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은퇴 후에 축구 재단을 만들어 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박지성 선수처럼 재단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엄마가 주시는 용돈을 모아서, 축구를 좋아하지만 축구공을 살 수 없는 어려운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 자신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는 첫 번째 목표입니다.

끝으로 굿은 날씨에도 먼 곳까지 운전해주시고 늘 격려해주시는 엄마, 아빠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엄마한테 프리미어리그에서 첫 골을 넣으면, 그 공에 사인을 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야구"

갈보리 무궁화 한국학교 박 세 웅



저는 운동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야구는 제가 제일 좋아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쯤 되면 제 꿈이 무엇인지 눈치채셨죠? 맞습니다.

제 꿈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야구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줄무늬 야구복을 입고, 야구모자를 멋지게 쓰고, 홈런을 시원하게 날리는 제 모습은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제가 홈런을 날릴 때, 구경 하는 사람들의 커다란 환호성 소리가 지금 제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달리자! 그 홈으로 아자! 아자! 저는 유명한 야구선수가 되어 많은 나라에 가서 운동경기를 하는 꿈도 꾸어봅니다.

야구를 함께 하며 여러 나라 친구도 사귀고, 그 친구들과 그 나라의 문화도 즐겨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선교팀을 통해 그 곳 어린이들이 얼마나 배고픔에 시달리며 살아가는지 듣게 되었고, 적은 돈으로도 그들에게 많은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여 돈도 좀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졌습니다. 그 나라 어린이들에게 야구도 가르쳐 주고, 다른 운동도 같이하며, 함께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목사가 되면 어떻겠냐고 제게 물어보십니다. 아니면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을 하면 어떻겠냐고 하십니다. 야구선수가 목사님이나 의사처럼 힘든 사람들을 잘 돌봐 주고, 사람도 살리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되고 싶어하는 의사나 훌륭한 목사님은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꿈꾸는 야구선수는 운동을 사랑하고, 체력도 튼튼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먹고, 체력도 튼튼히 길러서 강한 훈련에도 잘 견디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할 거고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야구를 통해 그들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면 한꺼번에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유명한 야구선수가 돼야겠죠? 그래서 경기가 없는 날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저 야구선수 박세웅인데요. 오늘은 사랑의 야구를 가르쳐 드립니다.” 하고 말하며 그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함께 운동하며 몸을 부딪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씻고,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요.

그 어느 날, 나이 많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들을 다시 찾아가 함께 그 때 그 ‘사랑의 야구’를 서로 이야기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이 다음에 ‘사랑의 야구팀’ 이 뉴스에 나오면 제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야구선수 ‘박세웅’ 입니다.

"희망을 꺼내는 의사 "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 조승연



저는 6 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단순하게 의사 선생님의 가운과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서 되고 싶어 했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은 작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시더니 왼쪽이 마비되었습니다. 그것은 치매 증상 때문이었어요. 제가 학교를 다녀올 때마다 웃어주시며 반겨주시던 할머니께서 한순간에 환자가 되셨다는 것이 아직도 실감이 안 납니다. 못 움직이셔서 할머니는 답답해 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하루하루 힘들게 간병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워,

뇌병들의 치료법을 연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6 학년 때 만났던 한 이상한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점심때 제 친구들과 떡같이 붙어 함께 식탁에 앉았는데, 저 건너편에 아주 촌스런 분홍색 옷을 입고 혼자 있는 여자아이를 봤습니다. 혼자 앉아 있길래 같이 앉자고 말을 걸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춤을 추며 바비 인형의 노래를 크게 불러서 그냥 모른 척 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 아이는 뇌에 문제가 있다고 7 학년 내내 제가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할머니께서 편찮으신 후 뇌 기능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아이는 그 다른 점이 더 컸기 때문에 그한가지 이유로 무시했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한 친구의 감정을 느꼈고, 뇌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어느 날 유명한 뇌 전문의사들을 검색해 봤는데, Ben Carson 이란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John Hopkins Children Center 에서 유명한 소아 신경외과 의사로 40 년 동안 일하신 분입니다. 닥터 Carson 은 의사가 되기 전까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버스 기사, 철광공장, 고속도로 청소부 등으로 일하시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 수많은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병만 고쳐준 게 아니라, 자신의 힘들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노력만 하면 그 무엇이든지 해 낼 수 있다는 증거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돌아다니며 저도 닥터 Carson 처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이 세상엔 많은 환자들이 희망을 마음 깊이 덮어 났는데 제가 친구가 되어, 그 희망을 다시 꺼내주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두 손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보람을 느끼는 그런 의사말입니다. 매일매일 이 마음과 나의 꿈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면, 닥터 Carson 의 말처럼 꼭 이룰수 있다고 믿습니다!

희망을 꺼내주는 닥터 조! 기대해 주세요 ~ 감사합니다